



폭설에 파묻힌 아파트 주차장 10일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강릉 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1m가량 쌓인 눈을 피해 주민들이 간신히 길을 걷고 있다. 지난 6일부터 닷새간 최고 122c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설로 이날 강릉, 속초, 양양, 동해, 고성, 삼척 지역 내 80%에 달하는 166개교가 휴교했고, 14개 마을 390여 가구가 사실상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원수 40만명...71% 수도권·대전 거주

우리나라 연구원 수가 9년 새 2배로 늘어나면서 40만명을 돌파했지만, 지역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10명 중 7명이 수도권과 대전에 거주하고 있고, 1인당 연구개발비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특히 광주·전남의 연구원 수는 양사·도를 모두 합해도 전체 연구원의 3% 수준인 1만명에 불과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2년 총 연구원 수는 40만1724명으로 전년(37만5176명)보다 7.1%(2만6548명) 증가했다. 2003년 19만8171명에서 9년 만에 2배로 증가하며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연구원 수 증가는 연구개발비 등 지원이 강화되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비는 2008년 34조4981억원에서 2010년 43조8548억원으로 40조원을 넘어선 데 9년새 2배로 늘어

광주·전남 1만명 불과 1인당 연구개발비도 지역간 2배 이상 격차

이어 2012년 55조4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5조5597억원) 증가하며 50조원을 돌파했다.

연구원 수가 매년 늘었지만 수도권과 대전에 편중된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수도권·대전에 거주하는 연구원 수는 28만6739명으로 전년보다 8.5%(2만2436명) 늘었다. 총 연구원 수 중 수도권·대전 연구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1.4%로 2006년 이후 6년만에 최고치다.

광주와 대전은 연구수가 비슷한 도시지만, 연구원수는 대전 2만 8285명, 광주 7128명으로 4배나 차이났다. 전남(3838명)을 합해도 광주·전남의 연구원 수는 1만966명으로 전국 총 연구원수의 2.7%에 그쳤다. 전남의 연구원 수는 제주(1901명)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과학기술 인력이 수도권·대전에 집중되는 것은 공공·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이들 지역을 선호하는 데다 정부의 연구개발비도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전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억9696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했지만, 광주는 9439만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1억3803만원이었다.

그나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1억4695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겨울 가뭄...목타는 섬

올 강수량 평년 30%...상수원 말라붙어 고흥·완도·신안 낙도 식수난 제한급수

“마실 물도 없어 목욕은 염두도 못내고 있어요.”

올 겨울 계속된 가뭄으로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주민 4700여명의 식수원인 오천제(70만㎡)가 바닥을 드러내는 등 전남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또 완도지역 일부 섬의 식수원의 저수율도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제한급수를 하는 등 겨울 가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전남도는 “최근 눈과 비가 내리지 않은 고흥군 금산면, 완도군 금일읍 등 1개 읍과 4개 면의 저수율이 10%대에 머물고 있어 제한급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곳은 거금도이며, 아예 저수지가 말라버려 과거 사용했던 ‘마을 상수도’를 대신 쓰고 있다. 마을 상수도는 지하수를 한 곳에 모아 식수로 쓰는 것을 말한다.

또 완도군 금일읍 상수원의 저수율이 4.7%에 불과하고 넓도 8.1%, 청산면 7.5%, 노화·보길도 13.5%의 저

있는데 상수원의 저수율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지하수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과 비가 오지 않아 신안에서는 지하 150~200m까지 관정을 뚫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 등 지하수 관정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문종욱 이장은 “군에서 식수를 매일 공급해줘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과거 쓰던 마을상수도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있고,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43차례나 섬 지역으로 물을 날랐다.

신안군도 지난 1월부터 4.2t의 물을 가뭄이 든 섬에 공급했고 예산 30억원을 들여 신의면과 기도, 고흥사도 간의 상수도 해저관로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또 여수시는 매일 생수를 개도 등 물부족 섬으로 나르고 있고, 지하수 개발에도 착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광주+인근 5개 시·군 초광역도시권 추진

지역발전 '행복생활권' 윤곽...전남은 중추·농어촌생활권 6곳 승인 신청

광주시와 주변 나주, 화순, 장성, 담양, 함평군이 교통 등 사회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6개 시·군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7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에 구성 승인을 신청했다. 행정구역상 면적만 3258km(광주 501km)에 이르는 인구 200만명에 육박하는 초(超)광역도시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농어촌 생활권(10만명 전후의 농어촌 시·군)과 중추도시생활권(50만명 이상 도시와 인근 시·군) 등으로 나뉘는 데,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주민의 식 등을 고려해 구성토록 돼 있다.

전남도도 광주와는 별도로 ▲목포·무안·신안·해남 진도 ▲순천·여수·광양·보성·고흥 등 2개 권역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담양·곡성·구례 ▲나주·화순 ▲함평·영광·장성 ▲특히 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은 광주를 포함한 중추도시생활권과 농어촌생활권 모두에 포함돼 이중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광주와 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생활권은 반경 30km안에 위치하면서 이미 1일 생활권을 구축한 상태로, 대도시인 광주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7월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의 광역환승 할인제 등 도입하는 등 일부 사회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다. 광주로 들어오는 통근율도 나주 22.5%, 담양 23.3%, 화순 30.5%, 함평 18.5%, 장성 34.0% 등으로 매우 높다.

이들 지역이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승인되면 광역도로와 도시철도(지하철), 광역환승시설 같은 연계도로망이 확충되고, 도시권 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근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함께 진행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지역발전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이달 말까지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을 만들어 지역행복생활권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관련 시범사업 예산으로 6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오는 2015년부터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 등 9개 부처, 128개 연계사업과 단독사업 등에 총 8조1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20여년간 검사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21세기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하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학력 및 경력

- 조선대부속고교, 조선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3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제20기)
- 이주대 경영대학원 MBA(금융보험)
-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 연수
- 서울중앙 · 부산 · 청주지검 검사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동부 · 북부 ·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담당

법무법인 21세기 대표변호사 송길용

■ 업무개시 : 2014. 2. 10. ■ 대표전화 : 062-224-0004 팩스 : 062-224-0005
■ 개업점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1-1 (변호사회관 5층) ■ 개업소연 : 2014. 2. 24. (월) 17:00 ~

sochi 2014 오늘의 소치올림픽

11일(화)

14:00 **합영**
▲예선(한국-일본) 신미선,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임민지

19:00~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예선/결승 김호준, 이광기

21:45~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예선/결승 이상화, 이보라, 김현영, 박승주

23:30~ **루지**
▲싱글 본선 성은영

24:00 **합영**
▲예선(한국-스위스) 신미선, 김지선, 이슬비, 김은지, 임민지

▶연방뉴스 ▶남·여 ▶배달 ★주요 경기

무엇보다 먼저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에서 벌어진 싱가포르 국적의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 모두의 마음에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빠른 보상과 완벽한 방제작업 마무리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번 일의 상처를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아낌없이 땀을 흘려주시는 자원봉사자와 해경, 여수시 및 국군장병 등 관계 기관 여러분의 큰 도움도 잊지 않고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나라 석유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임직원 일동